

옛 505보안부대, 5·18역사공원으로 바뀐다

광주시, 16일 '역사공원 조성공사' 착공식 5월 단체들 의견 수렴 본관·면회실·위병소 준치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실질적 지휘본부였던 광주시 서구 쌍촌동 '505보안부대 옛터'가 '5·18역사공원'으로 바뀐다.

광주시는 오는 16일 '5·18역사공원 조성공사' 착공식을 갖고 505보안부대 부지를 광주시민 품으로 돌리기 위한 첫발을 뚫는다.

광주시가 지난 2016년 5·18기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통해 505보안부대 원형복원 등 기본 활용 방안을 수립한 이후 4년 만에 구체화 작업에 들어가는 셈이다.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제26호인 옛

505보안부대는 당시 무자비하게 이뤄졌던 5·18 진압 작전의 실질적인 지휘본부다. 또 당시 주요 인사들을 끌고 고문을 자행했던 악명높은 곳이기도 하다.

광주시는 지난 2014년 10월 국방부에서 옛 505보안부대 부지를 무상양여받은 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젊은 세대들을 위한 교육공간·청소년 창의공간 등으로 활용키로 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해왔다.

하지만 5월 단체들이 고문수사와 감금 장소였던 505보안부대를 5·18과 관련없는 청소년 역사체험공간으로 꾸미는 데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활용 방안이 확정되지 못했다.

광주시는 이후 5월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505보안부대 내 본관·면회실·위병소 등을 원형 그대로 남겨놓고 나머지 공간을 5·18역사공원을 활용키로 최종 확정했다.

옛 505보안부대(부지면적 3만8459㎡)는 본관·식당 및 이발소·면회실·위병소·내무반·연립관사 등 6개 건물로 이뤄졌다.

광주시는 연립관사를 철거하고 3만6629㎡ 부지에 38억원(국·시비 각 19억원)을 투입해 5·18역사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역사공원은 '미래세대 꿈의 공원'이라는 컨셉에 맞춰 조성되며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키워드가 새겨진 4m 높이의 '입구 문주'를 세우고 5·18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우리들 마음속에 영원히 새긴다는 의미로 햇불을 형상한 '상징열주'도 놓인다. 5·18민주화 운동을 목판화 스타일로

풀어낸 31m짜리(높이 3m) '역사의 벽'도 공원 내 만들어진다.

시민들이 직접 그린 5·18작품을 전시하는 '참여의 벽'과 5·18 역사를 퍼즐로 풀어볼 수 있는 '놀이벽'도 제작돼 설치된다.

이외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아 편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역사배움터, 야외공연장, 잔디공원 등도 만든다.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역사공원을 완공,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원형보존 건물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관련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흥식 5·18구속부상자회장은 "미래세대들이 복원된 당시의 역사를 새겨 오월정신을 우리들 마음속에 영원히 새긴다는 의미로 햇불을 형상한 '상징열주'도 놓인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역사공원 주출입구에 세워지는 '입구문주' 조형물의 조감도.



5·18역사공원이 조성될 광주 서구 쌍촌동의 옛 505보안부대 전경. <광주시 제공>

오늘 광주·전남 30~80mm 장맛비

전남 남해안 시간당 30mm 올 듯 기상청은 10일까지 광주·전남 30~80mm, 전남 남해안 지역 50~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10일부터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남해안에서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9일 남해안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10일 새벽부터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전남 남해안 지역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비는 10일 오후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영상회의시스템' 포스트코로나 회의문화 자리매김

도교육청, 5월 개통 347회 이용 시스템 활용 전남학생회의 열려

전남교육청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자 구축한 '영상회의시스템(JWC)'이 호응을 얻고 있다.

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초 개통한 영상회의시스템은 현재까지 347회(도 교육청 86회·지역교육지원청 261회) 이용됐다.

참여자는 총 5612명(도 교육청 1401명·지역교육지원청 4211명)이다.

지난 7일에는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해 제2기 전남학생회의가 열렸다.

애초 도내 고등학교 학생대표인 '전남학생의원' 14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의장단 5명만 직접 현장에 참석하고 다른 학생의원들은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학생의원 여러분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언택트' 사회로 변화하는 흐름을 선제적으로 맞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전남 미래교육과 인사 혁신 공청회도 영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고, 동시에 유튜브 채널로 방송함으로써 회의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적극적인 전남교육 홍보에 기여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은 교직원들이 PC뿐 아니라 모바일로 쉽게 접속해 언제 어디서나 원격 회상을 통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김춘호 전남도교육청 행정국장은 "교직원들이 대면 회의를 탈피해 영상 회의를 주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효과적으로 각종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전남교육 행정에 새로운 바람이 이는 것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올 수능 난이도 조정·수시모집 생기부 평가 개선"을

코로나로 졸업생과 형평성 안맞아 전국시도교육감협, 교육부에 건의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올해 고3이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난이도를 조정하고 수시모집도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 평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연기되고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등 졸업생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9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고교수상교육 실시에 맞춰 고3 재학생들에게 응시수수료도 폐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응시수수료 징수 근거를 삭제하고 약 136억원의 예산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요청 방침이다.

교육감들은 매년 이뤄지던 교원능력개발평가도 올해는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공개수업이 어려워지는 등 예년처럼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한국교육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일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교직원에 의한 학교 성범죄를 예방하고 엄정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2건 통과됐다.

교육감들은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정식 건의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최고진 신임회장 취임에 따라 부회장으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박중훈 경남도교육감,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감사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추대했다.

교육부와 교육자치 현안을 논의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위원에는 당연직인 최교진 회장과 임원 4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6명이 참여한다.

교육감협의회 사무국도 확대된다. 직제를 기존 3과에서 2과1실로 개편하고 직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린다.

다음 교육감협의회 총회는 9월14일 전북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코로나와 광주교육 페이퍼 발간 광주교육정책연구소

광주교육청 광주교육정책연구소가 '코로나19와 광주교육'을 주제로 다룬 교육정책 이슈페이퍼를 발간, 전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육지원청, 산하기관에 배부하기로 했다.

9일 광주교육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전 지구적 비대면사회로의 전환과 온라인 개학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위기 대응 차원을 넘어 미래교육으로의 전환과 개혁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특별기획으로 구성됐다.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시대를 맞아 학교 교육의 지형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광주교육의 미래 모습과 지금부터 무엇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지를 5가지 주제로 정리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9월 모평도 인터넷 기반시험 가능

13일~23일 접수...코로나19 자가격리·등교중지 응시자 대상

고3과 졸업생이 참여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가 오는 9월16일 전국 86개 시험지구에서 치러진다.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를 고려해 자가격리자나 등교중지 중인 응시자는 인터넷 기반시험(IBT)으로 치를 수 있다.

시험 영역은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영역으로 나뉜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 영역이며, 나머지는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EBS 수능교재·강의와의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 70% 수준으로 유지한다.

장애인 편의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쓸 수 있는 점자정보 단말기를 제공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이며, 고3 재학생은 학교에서, 재수생 등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나 학원, 검정고시생은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전후 응시 수수료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접수도 가능하다.

응시 수수료는 1만2000원이며 재학생은 국고에서 지원된다.

이번 9월 모의평가도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IBT 시험이 가능하다.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거나 자가격리, 등교 중지된 학교 등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한 응시 희망자에 한해 온라인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전체 성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다른 응시자들의 성적을 참고해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성적표를 제공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

의료광고심의의필 제 191202-중-102255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목, 허리 디스크 치료

신경치료, 프롤로치료, 도수치료, 디스크 견인치료, 고주파치료

인생의 기둥 "목, 허리" 휘게 놔두지 마세요.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